신안군 신의도 올리브 섬으로 만든다

적합품종 선발 재배단지 조성
가공품·체험·관광상품 개발
6차산업 기틀 마련…소득 창출

신안군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신의도에 '신의 선물' 올리브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리브는 지중해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열대 작목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올리브를 요리재료로 사용하는 지중해식 식단이 장수식단으로 알려지고, 채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올리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안군은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해 온난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내에 심어진 올리브. 〈신안군 제공〉

특히 올리브 섬 조성 예정지인 신의면은 세계 최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지로 올리브 절임, 된장, 고추장 등 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단지로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인권과 평화의 섬 하의면과 연도교로 연결돼 있고, 섬 전체를 둘러싼 아름다운 해변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을 느끼고 여행과 체험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내에 올리브를 심어 지역적응성 실험을 통해 신안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중이다.

앞으로 올리브 생산단지 조성, 육묘장 신축, 지역적응 실증시험포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올리브 섬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새 소득작물인 '신의 선물' 올리브 섬 조성으로 침체한 농업농촌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공품 및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6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 양곡창고, 문화콘텐츠공간 재탄생

'55아트센터' 시범운영
전시·문화체험·버스킹 가능

무안의 오래된 양곡보관창고가 문화콘텐츠 복합공간인 '55아트센터'로 재탄생했다.

55아트센터는 무안군 일로읍에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콘텐츠 복합공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55아트센터는 1971년 건축된 양곡 보관 창고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연면적 330㎡에 갤러리, 메이커스, 아트 스페이스, 스토아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장으로 운영된다.

갤러리는 유명작가 초대전과 상설, 기획, 소장품 전시가 주로 진행되며 지역 예술단체와 동호회 그룹전 등 대관을 해줄 계획이다.

메이커스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생활 공감대'를 주제로 그룹형과 가족형으로 나뉘어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트 스페이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사연이 있는 작은 이벤트(버스킹), 소확행 초청 공연 등 창의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 된다.

스토아에서는 작가들과 연계해 굿즈상품을 개발하고 무안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박재용 55아트센터 대표는 "시범운영을 통해 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며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 일로읍에 문을 연 '55아트센터'는 문화콘텐츠 복합공간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55아트센터 제공〉

목포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인기몰이'

주말 평균 500여명 찾아
접근 편리하고 편의시설 다양

목포시가 서남권 최초로 개장한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0월22일 개장 이후 SNS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반려동물 양육가정에게는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지난 주말 평균 반려견 150여마리, 보호자 500여명이 찾으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평일에도 반려견 50여마리, 보호자 150여명이 찾을 정도로 반려동물놀이터는 개장 초반부터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이 편리하고, 파라솔, 벤치, 음수대, 산책로, 잔디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힐링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대형견과 중소형견의 놀이공간이 분리됐고,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인력 2명이 상주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 해결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개장한 목포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가 주말 하루 평균 150여마리, 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동절기와 우천시에는 운영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하는 힐링 공간"이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 북항 동·서 방파제 등대 새단장

방문객 사고 예방 난간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표지 기능 향상과 입출항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목포 북항 동·서방파제 등대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존 목포 북항 방파제등대는 장기간 사용과 해풍에 의한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목포해수청은 해안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이 확보된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방문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난간을 보강, 설치했다.

목포 북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 길잡이 역할은 물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해양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해수청은 기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새롭게 단장한 풍차등대. 〈목포해수청 제공〉

완도 수산물 美 서부 LA·동부 뉴저지서 판촉전

완도산 수산물이 미국 서부에 이어 동부 지역까지 진출한다.

완도군은 10월 한 달간 미국에서 '완도 수산물 판촉 프로모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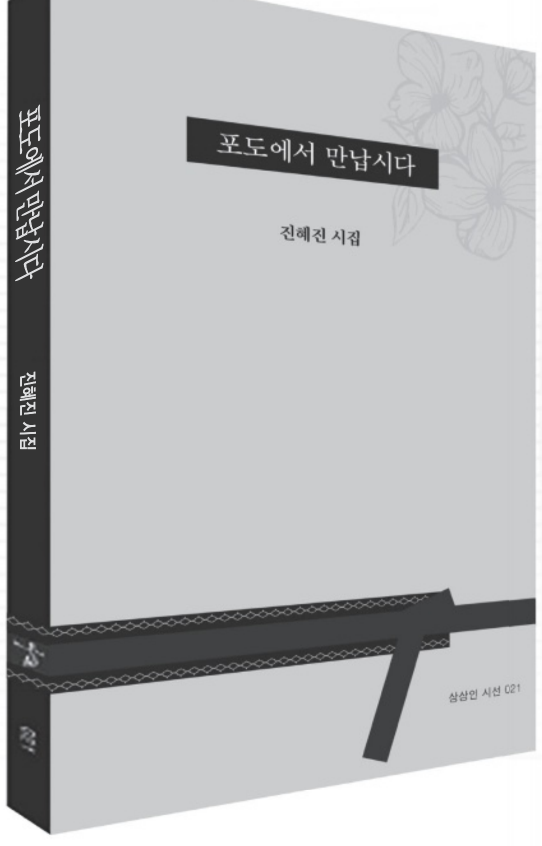
이번 판촉 프로모션은 해양수산부의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완도군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판촉전은 10월 1일부터 10일간 미국 서부 울타리 USA LA점과 라미라다점에서, 18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 동부 뉴저지 대형 유통 마트인 한남체인에서 각각 진행된다.

기존에는 판촉전을 미국 서부 지역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동부 지역까지 확대해 향후 북미 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 앞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냉동 전복과 해초 국수, 전복 만두, 전복 볶음밥, 구운 김, 모둠 해초, 다시마, 미역 등이 수출 길에 올랐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 바이어와 연계한 판촉 행사를 미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프랑스, 호주 등에서 꾸준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넴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포도에서 만납시다」|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